

“AI 시대 지정학적 한계 넘어야... 韓·日 경제통합으로 돌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美-中 AI 패권 경쟁 격화 상황에서 韓 독자적 영향력 확보 어려워

日과 통합 시 6조 달러 규모 확보 동남아 편입으로 시장확대 가능성 데이터센터 최소 30GW 규모 필요 병목 요인, 자금·전력·GPU·메모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한일 경제통합과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단독으로는 규모와 협상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영향력을 키우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AI 시장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중 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만으로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GDP는 약 1조8000억 달러로 중국의 10분의 1, 미국과는 15~20배 차이가

난다”며 “상대편이 우리를 그렇게까지의 식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본과의 경제통합을 제안했다.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외부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그냥 협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 합쳐진 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힘이 생긴다”며 “한·일이 통합하면 6조 달러 규모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을 사례로 들며 경제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EU를만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국이나 중국에 대등한 형태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규모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경제통합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6조 달러의 힘을 갖게 되면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 쪽으로 편입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중국과 맞먹는 시장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에는 AI 공장이 없다”며 데이터센터 구축

규모를 최소 10~30기가와트(GW)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SK가 아마존웹서비스와 10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구축하기로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1GW 수준을 넘어 최소 20~30GW 규모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확산 과정에서의 병목 요인으로는 자금과 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지목했다. 특히 메모리 수급과 관련해 “지금은 메모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제한돼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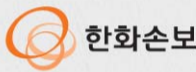
국내 AI 활용 전략으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한 초기 시장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수요를 먼저 형성해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민간 투자와 기업 내부 AI 전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방향이다.

최 회장은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를 모아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먼저 만든 서비스와 모델을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상품이 아니라 기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AI 전략에서는 속도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여성의 인생은 한 챕터로 끝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하던 보험에서 마음까지 챙겨주는 보험으로

현실과 멀었던 케어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하는 케어로(특약)

그렇게 여성의 현실을 깊이 살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지난해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 5.2조대 유지

중기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전체 벤처투자 76%... 전년비 1.2% ↓ 차세대 유니콘·지역성장펀드 지원

지난해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이 5조2000억원대를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AI 모델 및 인프라(인공지능)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총 투자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조8000억원)의 약 76%를 차지했다.

12대 신산업 분야 총투자액은 전년도 5조2657억원에서 1.2% 줄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억9000만원으로, 신산업 이외 분야(19억1000만원) 대비 1.7배 가량 높았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이 전체 투자의 19.6%인 1조3000억원을 유치하며 12대 신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1조1800억원), 헬스케어(1조1300억원), 첨단제조(9700억원)에도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생명신약(+35.4%), 방산·우주항공·해양(+19.2%), 모빌리티(+16.5%)는 전년 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도체(-20.8%)는 주춤했다.

벤처투자액 중 후속투자는 87.7%인 4조5624억원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기

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업력별로는 7년 이후 기업에 50% 이상 투자가 이뤄졌고,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커졌다.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58개사로, 신산업 분야 기업이 131개사(83%)에 달했다. 500억원 이상 투자 받은 6개사는 모두 신산업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조1000억원(79.1%), 비수도권 1조1000억원(20.9%)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조6000억원)이,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3913억원)과 경남(1071억원)이 선전했다.

대전은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갖춘 트리오어 등 생명신약 분야 투자가 활발했다. 경남은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엠엔에스아이 등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 비율이 높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창업·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공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 등으로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9203호(2026.01.23~2027.01.22)